

광개토왕대 고구려의 군사발전과 성장

羅棟煜*

1. 머리말
2. 고국원왕~광개토왕 재위기 대외전쟁
3. 군사발전의 계기적 요인
4. 맺음말

1. 머리말

고구려는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後燕과의 각축 끝에 요동지역을 확보하는 숙원을 이루었다.¹⁾ 광개토왕은 남쪽으로도 세력을 투사했다. 永樂 6년(396)에 백제를 공략하여 58성 700촌을 攻取했고 아신왕을 奴客으로 삼아 고국원왕의 죽음을 설욕하였다. 영락 10년(400)에는 倭의 공격으로 곤란에 빠진 신라를 구원하니 나물왕이 광개토왕에게 조공하기도 했다.²⁾ 이처럼 삼국 간 세력 각축에서 주도권을 확보한³⁾ 고구려는 5세기에 이르러 동북아

* 前 육군사관학교 교수

1) 孔錫龜,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서경문화사, 1998, 40~47쪽.

2) 『廣開土王陵碑文』

3)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시아에서 자국 중심의 관념적 국제질서를 성립 및 발전시켰다.⁴⁾

이렇게 고구려가 광개토왕대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학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이해해 왔다. 첫 번째는 소수림왕대 내정 정비와 국력 축적에서 그 동인을 찾는 견해이다.⁵⁾ 소수림왕은 불교를 국가차원에서 수용하여 새로운 정신세계를 제시하였고, 대학을 설치하여 인재양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⁶⁾ 또한 律令을 처음으로 반포하여 국가통치와 지배체제의 기반을 닦았다.⁷⁾ 이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고구려의 국력을 성장시켰고 광개토왕대에 폭발적인 영역확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시 국제 전략 환경이 고구려의 영역확장에 유리하게 형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⁸⁾ 중국이 5호 16국의 혼란기로 접어들면서 요동일대에 세력 공백이 발생하였고, 그 공백이 고구려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위의 두 가지 관점의 연구들은 광개토왕대 고구려의 성장과 남진을 정치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고구려의 성장이 연속적인 군사적 성공의 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군사적 성공을 체제 정비와 국력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군사 분야에 주목한 연구들도 영역 확장 및 성장과정과 의의 분석에 치중하거나,⁹⁾ 중장기병에 대한 연구가

4) 盧泰敦,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の 天下觀」, 『韓國史論(서울대)』 19, 1988; 시노하라 히로카타, 「高句麗의 國際秩序認識의 成立과 展開-4~5세기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5) 盧重國, 「高句麗 律令에 관한 一時論」, 『東方學志』 21, 1979 : 앞의 논문, 1981; 朴性鳳, 「高句麗의 漢江流域進出과 意義」, 『鄉土서울』 42, 1984.

6)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2年(372) 條.

7)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3年(373) 條.

8) 孔錫龜, 앞의 책, 1998.

9) 孔錫龜, 앞의 책, 1998 : 朴性鳳, 앞의 논문, 1984; 徐榮洙, 「廣開土大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上)」, 『歷史學報』 96, 1982 : 「廣開土大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中)」, 『歷史學報』 119, 1988; 千寬宇, 「廣開土王의 征服活動」, 『韓國史市民講座』 3, 일조각, 1999이 대표적이다.

많았다.¹⁰⁾

그러나 고구려의 영역확장과 성장은 군사 활동이 담보되어 있었다. 이는 광개토왕대 영역확장과 국가 성장에 있어 전쟁을 부차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정치발전과 외부 전략환경만을 고려 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에는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더욱이 전쟁은 軍事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고구려의 영역확장의 동인을 군사 관련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국원왕~광개토왕 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군사적인 변화가 국가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군사 의 일부 범주로서의 전쟁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계기적 요인에 의한 군사발전이 전쟁과 국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국원왕~광개토왕 재위기 대외전쟁

(1) 고국원왕대의 대외전쟁

사료의 부재로 4~5세기 고구려의 군사력이나 국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일정한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 지표는 전쟁의 승패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장에서는 해당 시기 고구려의 대외전쟁¹¹⁾을 검토하여 고구려의 군사력 및 국

10) 徐榮教, 「高句麗 騎兵과 鏡子 - 高句麗 古墳壁畫 分析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181, 2004a : 「高句麗 壁畫에 보이는 高句麗의 戰術과 武器」, 『高句麗研究』 17, 2004b; 余昊奎, 「高句麗 中期의 武器體系와 兵種構成」, 『韓國軍事史研究』 2, 1999; 李仁哲,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裝騎兵」, 『軍史』 33, 1996 : 「高句麗의 對外征服 研究」, 백산 자료원, 2000; 정동민, 「高句麗 重裝騎兵의 모습과 도입시점에 대한 小考」, 『전통문화연구』 6,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 2007 : 「高句麗 重裝騎兵의 特徵과 運用形態의 變化-古墳壁畫資料를 中心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11) 3~5세기 초까지 고구려의 주요한 전쟁 상대국은 서북면에 위치한 모용씨의 후연과 남쪽의 백제였다. 다만 시기별로 전략의 지향중심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고국원왕 재위

력 변화양상을 살펴보겠다.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국세유지 및 발전을 위해 팽창적인 대외정책을 유지해왔다. 고국원왕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왕은 요동을 차지하기 위해 모용씨의 전연과 여러 차례 전쟁에 임했다.¹²⁾ 그러나 왕의 재위 12년(342)에 전략판단의 실패로 인해 환도성이 함락 당하였으며, 미천왕 시신 및 왕모주씨를 빼앗겼다.¹³⁾ 이로 인해 전연에 대해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던 고국원왕은 남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백제와 전쟁이 격화되었다.¹⁴⁾

고국원왕은 재위 39년(369)에 백제에 선공을 가했다. 그러나 백제 근초고왕의 반격으로 고국원왕은 치양에서 크게 패하여 5천여 명의 피해를 입고 퇴각하고 말았다.¹⁵⁾ 그런데 치양전투를 상세히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된다.

- A. 고구려의 國岡王 斯由가 친히 쳐들어 왔다. 근초고왕이 태자를 보내 이를 막게 하였다...〈중략〉...고구려사람 斯紀는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중략〉...이때 돌아와 태자에게 말하기를 “저들의 군사가 비록 많으나 모두 숫자만을 채운 疑兵일 뿐입니다. 날래고 용감한 자들은 오직 붉은 깃발의 부대뿐이니 만약 이를 먼저 깨뜨리면 그 나머지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태자가 그 말을 따라 나아가 쳐서 크게 이기고는...〈하략〉...¹⁶⁾

초기에는 모용씨와의 전쟁에 주력하다 외교적 열세에 처하게 되자 팽창의 지향점을 남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 재위기에도 모용씨와 전쟁이 지속되었으나 당시 고구려의 주요 전략적 지향점은 백제를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朴性鳳,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南進의 性格』, 『韓國史研究』 27, 1979, 7~15쪽; 王建群 著, 林東錫 譯,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1985, 224쪽; 윤명철, 『高句麗 海洋交涉史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71쪽).

12)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9年(339), 12年(342), 15年(345) 條.
 13)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12年(342) 條.
 14) 朴性鳳, 『發展期 高句麗의 南進過程-특히 西安平, 樂浪攻取의 南進的 性格을 내세우며, 『美源 趙永植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1981, 156~187쪽; 盧重國, 앞의 논문, 1981, 54쪽.
 15)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24年(369) 條.
 16)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仇首王 元年(375) 條. '先是 高句麗國岡王斯由 親來 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高句麗人斯紀 本百濟人 誤傷國馬蹄 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 曰 彼師雖多 皆備數疑兵而已 其驍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不攻自潰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A에 따르면 고구려에 도망해 있던 백제인 斯紀가 근구수왕에게 고구려군 대부분이 숫자만을 채운 疑兵임을 고하였다. 백제군은 고구려군의 허실을 이용하여 승리했다. 이 기록은 승패의 결과보다 고구려의 병력 구성에서 보이는 취약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군은 국왕의 친정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력이 허병이었다. 이는 전투 당시에 고구려의 군사력과 국력이 고국원왕 재위 초에 비하여 저하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군사력 및 국력 저하는 대 전연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국원왕 12년(342)에 전연에 패했던 고구려는 궁실이 불타고 왕도가 파괴되었다.¹⁷⁾ 왕도가 파괴되면서 각종 생산시설에도 타격이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했을 것이다. 선왕의 시신과 왕모 반환을 위한 외교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 고국원왕은 재위 13년(343) 王弟를 전연에 보내어 신하를 칭하고 조회하며 진기한 물품 1천여 점을 바쳤으나 미천왕의 시신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동왕 25년(355)에 이르러서 다시 인질과 조공을 보내고서야 왕모 송환이 이루어졌다.¹⁸⁾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연과의 전쟁이 계속되어, 동왕 15년(345)에는 남소성을 전연에게 탈취 당했다.¹⁹⁾ 경제적인 부담과 국력의 저하로 고구려군의 재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국왕의 친정군을 허병으로 편성하게 되었던 원인으로 생각된다.²⁰⁾ 백제는 이러한 고구려군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치양전투 이후 백제는 패퇴하는 고구려군을 추격하여 황해도 신계지역으로 비정되는 수곡성의 서북지역까지 진출하였다.²¹⁾ 고국원왕은 재위 41년(371)에도 백제를 선제공격하였으나, 백제군의 매복에 패퇴하였다. 같은 해

17) 각주 13 참조.

18)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13(343), 25年(355) 條.

19) 『資治通鑑』 卷97 晉紀 19 穆帝 永和 元年(345) 條.

20) 한편 서영일은 고국원왕의 목적이 전투가 아닌 무력시위였기 때문에 의병-비정규군으로 군을 편성했다고 파악하였으나(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2006, 46~47쪽), 앞서 분석한 정황으로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

21) 수곡성을 고구려에 빼앗겼다는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30年(375) 條의 기록을 볼 때, 백제가 이때 수곡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수곡성의 전략적 가치와 당시 백제의 전략에 대해서는 서영일, 위의 논문, 2006, 47쪽을 참고.

9월에 백제는 앞선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수곡성²²⁾을 발판삼아 평양성²³⁾을 공격하였고 고국원왕은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²⁴⁾

당시 백제는 근초고왕의 영도 아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연전의 극심한 피해로 국력이 약화되고 군사력의 질적 저하상태에 빠졌던 고구려는 백제와의 군사력 차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근초고왕의 역공으로 낙랑과 대방지역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이 전사하기까지 했다.

(2) 광개토왕대의 대외전쟁

고구려는 소수림왕과 고국양왕대 對 백제 전쟁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²⁵⁾ 그러나 고국원왕대 고구려의 일방적인 패배와는 달리, 양국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팽팽하게 맞추어져 있는 대치국면이 전개되었다. 모용씨와의 전쟁에서도 고국양왕이 요동과 현도를 일시 함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점유기간은 5개월에 불과했다.²⁶⁾ 이처럼 고국원왕대의 국력 및

22) 백제와 고구려는 369년에 황해도 배천에서, 371년에는 패수에서 충돌하였으므로, 당시 서부지역(지금의 경기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양국의 경계는 예성강을 중심으로 하여 황해도 남부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리적인 위치로 보았을 때 371년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한 최적의 거점은 지금의 신계인 수곡성이 될 것이다.

23) 이때 백제가 공격한 평양성을 황해도 신원의 남평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손영종,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0, 174~185쪽). 그러나 필자는 문안식의 견해와 같이 평양성을 대동강 유역에 위치한 평양으로 보고자 한다(文安植, 『백제 한성기 北界와 東界의 변천』, 『백제연구』 44, 2006, 17쪽). 문안식은 백제군의 평양 진출 경로를 봉산-서흥-신천-자비령-황주-중화-평양으로 비정했다.

24) 『三國史記』 卷 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26年(371) 條.

25) 이 기간 양국은 8차례의 공방을 벌였다.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것이 5차례였고(『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5(375), 6(376), 7(377)年 條, 故國壤王 3(386), 7(391)年 條),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 3차례였다(『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7年(377) 條, 故國壤王 6(389), 7年(390) 條). 그러나 양국의 전과는 미미하여 백제가 고구려의 都押城을 공취한 정도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도압성은 『三國史記』 卷 第25 百濟本紀 第3 辰斯王 6年(390) 條에는 都坤城이라 되어 있다. 그 위치는 개성 북방의 大興山城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尹日寧, 1990, 『關彌城位置考-廣開土王碑文, 三國史記, 大東地志를 바탕으로』, 『北岳史論』 2, 136쪽).

26)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壤王 2年(385) 條.

군사력 약화가 소수림왕과 고국양왕대까지 여파를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광개토왕이 즉위하면서 대외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광개토왕 재위기 대외전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광개토왕대 대외전쟁 현황

구분	시기	상대국	동원 병력	내 용	전 거
1-1	392 7월	백제	·	석현성 등 10성 공취	百濟本紀 第3
1-2	392 9월	거란	·	거란 공격, 백성 1만 招慰	高句麗本紀 第6
1-3	392 10월	백제	·	관미성 공취	百濟本紀 第3
1-4	393	백제	·	백제의 관미성 공격을 격퇴	百濟本紀 第3
1-5	394	백제	기병 5천	백제의 수곡성 공격을 격퇴	百濟本紀 第3
1-6	395	백제	7천	진무의 침입을 패수에서 격퇴	百濟本紀 第3
1-7	395	稗麗 후연	·	稗麗 정벌 3개 부락 600~700명 격파 요동 지역 확보	「廣開土王陵碑文」
2-1	396	백제		왕도함락, 아신왕 항복, 58개 성 700촌 공취	「廣開土王陵碑文」
2-2	398	숙신	·	숙신 격파 생구 300인 생포	「廣開土王陵碑文」
2-3	399	후연	·	신성·남소성 함락 영토 700리, 5천호 상실	高句麗本紀 第6
2-4	400	왜	보기 5만	신라 구원 왜군 격퇴	「廣開土王陵碑文」
2-5	401	후연	·	숙군성 공격, 평주자사 모용귀 도망	高句麗本紀 第6
2-6	403	후연	·	후연의 燕郡 공격	『晉書』124 載記 慕容熙
2-7	404	후연	·	후연군의 요동성 공격 격퇴	高句麗本紀 第6
2-8	405	후연	·	후연군의 목저성 공격 격퇴	高句麗本紀 第6
2-9	404	왜	·	대방에 침입한 왜군을 격파	「廣開土王陵碑文」
2-10	407	백제	보기 5만	백제군 공파, 沙溝城 등 격파	「廣開土王陵碑文」
2-11	408	동부여		동부여 토벌	「廣開土王陵碑文」

〈표 1〉에 따르면 당시 고구려의 주요 전쟁 상대국은 북쪽의 후연(6회)과 남쪽의 백제 및 왜(9회)로 파악된다. 즉위 초년간의 전쟁은 주로 백제와의 대결에 치중되어 있었다. 광개토왕은 즉위 원년에 백제의 관방²⁷⁾을 돌파하

27) 진사왕은 청목령에서 북으로는 팔곤성과 서로는 서해에 이르는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三國史記』 卷 第25 百濟本紀 第3 辰斯王 2年(386) 條).

여 석현성(표 1, 1-1)과 관미성(표 1, 1-3)을 함락시켰다.²⁸⁾ 이에 백제는 관미성(표 1, 1-4)²⁹⁾, 수곡성(표 1, 1-5)³⁰⁾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진무의 공격(표 1, 1-6)도 패수에서 격퇴³¹⁾ 당하였다.

백제의 공격을 격퇴한 광개토왕은 시선을 북방으로 돌려 稗麗를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후연이 북위와 상쟁하는 틈을 타 395년 요동지역을 확보하였다(표 1, 1-7).³²⁾ 요동지역의 영유권을 다진 광개토왕은 396년부터 백제에 대한 강력한 공세를 취했다.

광개토왕은 396년 백제의 왕도를 함락시켰고, 아신왕의 항복과 더불어 58개 城과 700촌을 확보하였다(표 1, 2-1).³³⁾ 이에 백제는 399년 왜와 연

28) 『三國史記』 卷 第25 百濟本紀 第3 辰斯王 8年(392) 條.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이병도는 교동도로 비정하였고(李丙燾, 위의 책, 1976, 379쪽), 박성봉은 강화로 보았다(朴性鳳, 앞의 논문, 1979, 9쪽), 金倫禹는 파주시 성동리로 파악했다(金倫禹, 『廣開土의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察』, 『車文燮教授 華甲論叢』, 1989, 102쪽). 윤일녕은 임진강과 한강의 합류점인 오두산성을 관미성으로 보았다(尹日寧, 앞의 논문, 1990, 103쪽). 필자는 관미성의 위치를 교동도로 보고 있다. 한편 광개토왕이 영락 6년(396)에 해상 기동으로 백제를 공략했던 발판은 이때 관미성을 점령함으로써 마련되었다(윤명철, 『廣開土太王의 군사작전에 대하여 - 수군을 중심으로』, 『廣開土太王과 高句麗 南進政策』, 2002, 158쪽).

29) 『三國史記』 卷 第25 百濟本紀 第3 阿莘王 2年(393) 條.

30)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廣開土王 3年(393) 條.

31) 『三國史記』 卷 第25 百濟本紀 第3 阿莘王 4年(395) 條.

32) 고구려의 요동확보 기년과 영유권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논리의 전개상 3장에서 후술하겠다.

33) 『廣開土王陵碑文 永樂 6年 條. 본 사료는 광개토왕의 위업을 높이려 왕의 즉위 이후 대백제 전쟁의 전과를 집약하여 기록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武田幸男, 『高句麗 廣開土王紀 對外關係記事』, 『三上次男博士 頌壽紀念 東洋史·考古學論叢』, 明友書店, 1979, 266~277쪽). 그러나 396년은 광개토왕이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며 다대한 전과를 거두었으며, 양국의 관계가 새롭게 전개되는 기점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공취한 성이 10성 정도이므로, 58성 700여 촌이라는 전과의 대부분은 396년에 거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고구려의 남진 한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이에 대해서는 千寬宇,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1979, 9쪽; 李丙燾, 앞의 책, 1976, 382쪽; 李仁哲, 앞의 책, 2000, 132~143쪽; 文安植, 앞의 논문, 2006, 23~25쪽; 김수태, 앞의 책, 2007, 75쪽; 이도학,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 광개토왕릉비문을 통한 고구려사』, 서경, 2006, 370~378쪽을 참고하기 바람).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광개토왕이 백제의 국도를 함락시키며 아신왕의 항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또한 이는 고구려의 국력이 과거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새롭게 개척된 영역의 남계를 천착하기보다 광개토왕이 그간 전개되었던 대 백제 전쟁의 양상에 전환점이 되는 전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화하여 고구려에 대항하려 했다.³⁴⁾ 이에 광개토왕은 399년 평양성으로 행차하였고, 400년에 고구려의 영향력하에 있던 신라³⁵⁾를 위협하는 왜병을 步騎 5만 명으로 격파하여 백제의 의도를 분쇄했다(표 1, 2-4).³⁶⁾ 한편 399년에 후연이 남소성과 신성을 함락시키고 700여 리의 영토를 탈취한 사실(표 1, 2-3)이 보이는데 이는 후연과 고구려의 관계에 있어 후연에 주도권이 있었다기보다는 광개토왕이 백제 방면에 전력을 집중했던 틈을 탄 기습적인 공격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후 후연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여 속군성(표 1, 2-5)과, 燕郡(표 1, 2-6)을 공격하였으며, 요동성(표 1, 2-7)과 목저성(표 1, 2-8)에 대한 후연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407년에도 고구려는 백제와의 전쟁(표 1, 2-10)에 步騎 5만을 파견하여 승리했다.³⁷⁾

이러한 전쟁들을 살펴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음이 발견된다. 광개토왕 즉위 초년기 백제와의 전쟁은 고구려가 석현성과 관미성 등을 공취하여 상당부분 고구려의 우세로 돌아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양국의 대치는 광개토왕 즉위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백제는 수곡성과 관미성을 다시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백제가 수곡성을 육로로 공격³⁸⁾한 것으로 보아 백제가 여전히 임진강 이남과 강원도 및 황해도 경계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발판을 보유하고 있었다.

34) 金澤均, 「4세기말 5세기초의 百濟와 倭와의 관계」, 『江原史學』 15·16合輯 - 雲霞金奎皓教授停年紀念論叢, 2000.

35)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관계』, 신서원, 2008, 85~89쪽.

36) 『廣開土王陵碑文 永樂 9年 條』.

37) 『廣開土王陵碑文 永樂 17年 條』. 본 사료의 교전 대상을 천관우는 후연으로(千寬宇, 앞의 논문, 1988), 今西龍은 왜와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今西龍,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訂正増補大日本時代史』 下卷, 1915). 그러나 沙溝城등 성의 명칭 등을 볼 때 대적한 주체를 백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135쪽, 215~217쪽).

38) 아신왕의 수곡성 공격이 수상기동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있으나(김수태, 앞의 책, 2007, 70쪽), 예성강·임진강·한강의 하구를 통제했던 관미성과 임진강 이북의 10성을 공취당한 시점에서 예성강 수로를 통해 수곡성을 공격했다는 견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백제의 공격은 육상기동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395~396년을 기해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양상이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즉, 고구려가 백제의 왕도를 함락시키는 등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며 고구려의 일방적인 우세로 돌아선 것이다.

광개토왕 즉위 전까지 전세가 백중세를 이루고 있었고, 백제가 한반도내 최대의 생산력을 지니고 있었던 한강유역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가 갑작스레 역전되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물론 진사왕의 즉위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나,³⁹⁾ 진사왕의 왕권이 건재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산견된다.⁴⁰⁾ 또한 전지왕 이전까지 백제는 왕권의 의해 정국이 주도되었기⁴¹⁾ 때문에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전쟁의 패배로 직결되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특히 永樂 6년(396) 광개토왕의 백제 공격이 진사왕과 아신왕 사이의 왕위 계승의 혼란⁴²⁾을 틈탄 것일 수도 있으나, 아신왕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

39)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1988, 132쪽.

40) 진사왕은 재위 2년에 靑木領(개성 청석령)에서 북쪽 변경지역인 八坤城에 이르는 지역과 서해안의 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곳까지 관방시설을 설치하였다(『三國史記』卷 第25 百濟本紀 第3 辰斯王 2年(386) 條). 재위 7년에는 궁궐을 증수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다(『三國史記』卷 第25 百濟本紀 第3 辰斯王 7年(391) 條). 또한 진사왕은 서쪽의 큰섬(大島)·橫岳·狗原에서 전립을 실시했다(『三國史記』卷 第25 百濟本紀 第3 辰斯王 6年(390) 10月, 7年(391) 7, 8月, 8年(392) 10月 條). 이러한 토목공사가 국력을 소진시키고 전쟁 직후의 전립이 역기능을 불러일으켰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강종원,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 2002, 140~141쪽; 梁起錫, 「수도 한성의 함락과 웅진천도」, 『漢城百濟史2-건국과 성장』, 2008, 250쪽), 진사왕 재위기에 이루어졌던 각종 토목공사와 전립하여 군사를 훈련하고 군사통수권을 확립했던 면모는 왕권의 건재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2002, 56~58쪽).

41) 盧重國, 「4~5世紀 百濟의 政治運營-近肖古王代~阿莘王代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論叢』 6,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4.

42)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진사왕과 아신왕의 교체과정은 특이점이 없다. 그러나 『日本書紀』에 따르면 진사왕이 살해되었다고 기록(『日本書紀』卷 第10 譽田天皇 應神天皇 3年(272) 條. '是歲 百濟辰斯王立之失禮於貴國天皇 故遣紀角宿禰羽田矢代宿禰石川宿禰木菟宿禰 噴讓其無禮狀 由是 百濟國殺辰斯王以謝之 紀角宿禰等 便立阿花爲王而歸')되어 있어 모종의 정변에 의해 왕위 교체가 이루어졌음이 추정된다(李道學, 「漢城 後期の 百濟王權과 支配體制의 整備」, 『百濟論叢』 2, 1990, 288~291쪽). 진사왕의 죽음은 즉위 과정상의 문제와 비정상적인 통치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거나(강종원, 앞의 책, 2002, 141쪽), 392년 대 고구려전의 패배에 대한 사후수습을 위해 지배세력 간에 벌어진 대립과 갈등의 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梁起錫,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76쪽)되고 있다.

해 왕권을 상당히 안정시켰다.⁴³⁾ 따라서 광개토왕의 즉위와 관미성 함락을 기점으로 시발되고 백제 왕도 공취에 따라 극적으로 표출되었던 고구려의 우세를 전적으로 백제 내부의 정치적 문제와 결부시키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 후연 전쟁의 주도권도 고구려가 가지게 되었다. 395년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하게 되었고,⁴⁴⁾ 399년 남소성과 신성을 일시 탈취 당하긴 했으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후연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숙군성과 연군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후연의 공격을 패퇴시켜 고구려의 우위를 확고히 했던 것이다.

물론 후연이 북위의 공격으로 인하여 상당히 피폐해졌던 사실은 분명하지만,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하고 대 후연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실상의 원인을 단순히 후연과 관련된 외적환경변화에서만 찾는 해석도 현상의 일면만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백제에 후연에 대한 고구려의 우세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에 대한 실마리를 군사적 측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43) 해당 기년은 아신왕이 즉위한 지 이미 5년이 흐른 상태였다. 또한 아신왕은 즉위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東明墓를 배알하고 南壇에서 祭天을 행하여 왕권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지배세력을 결집시켰다(『三國史記』 卷 第25 百濟本紀 第3 阿莘王 2年(393) 條). 이후 아신왕은 왕의 즉위에 공이 있었던 진무를 좌장으로 임명, 진씨 세력을 포섭하여 왕권강화에 이용하였다(李基白,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1959, 31~36쪽). 이에 더하여 왕은 재위 3년(394)에 元子 腆支를 태자로 책봉하여 왕실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며, 庶弟 洪을 내신좌평에 임명(『三國史記』 卷 第25 百濟本紀 第3 阿莘王 3年(394) 條)하여 왕족으로 하여금 정국의 주도권을 잡도록 조치하여 권력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왕권 강화를 통해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시 불안정했던 정국은 안정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44) 고구려의 요동확보 기년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논지 전개상 3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3. 군사발전의 계기적 요인

(1) 군대규모 증가와 보급체계 개편

전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구려가 불과 20여 년 전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백제를 굴복시키고 요동에 대한 후연의 공세를 타파했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된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기존의 견해들은 고구려 서북면의 정세변동에 따른 외적 성장 여건 조성⁴⁵⁾과 소수림왕대 율령 반포 등의 체제정비와 왕권의 강화에 따른 국력 성장에서 원인을 찾아왔다.⁴⁶⁾ 하지만 광개토왕은 어디까지나 군사 작전을 통해 백제를 굴복시켰고, 후연과의 쟁패에서 승리했다. 따라서 그 원인도 군사 측면에 주목하여 찾을 필요가 있다.

광개토왕 당시 특기할 만한 군사적 변화는 군대규모에서 나타났다. 고구려가 전쟁에 동원했던 병력을 파악 가능한 사건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를 분석해보면 고구려는 대체적으로 3세기 이전에는 1만 명 이하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다. 3세기에 이르면 2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4세기 고국원왕대에 이르면 5만 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광개토왕 재위기에는 7년 간격을 둔 2차례의 외정에 5만 명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고국원왕이 동원한 군사와 광개토왕이 원정에 투입한 부대의 경우, 그 규모는 동일했지만 내포된 의미는 상이했다고 생각된다. 고국원왕은 전연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의 중심을 방어하기 위해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동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광개토왕의 경우 후연의 위협이 상존했기 때문에,⁴⁷⁾ 서북면 수비병을 주둔시킨 상태에서 외부를 향한 군사력 투사에 5만 명의 병력을 2차례나 동원했다. 또한 해당 전쟁은 국내가 아닌 타국의 영

45) 각주 8 참조.

46) 각주 5 참조.

47) 실제로 광개토왕 재위기 후연의 침입이 있었다(『三國史記』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廣開土王 9年(399), 14年(405) 條).

토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5만 명의 전투근무지원을 위한 보급부대를 운용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고구려가 국가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수비병을 제외하고도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빈번히 동원 및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군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전투력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광개토왕대 고구려가 대외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표 2〉 1~5세기 초 고구려의 병력동원 현황

구분	시기 (서기년)	동원병력	전투지역	내 용	전 거
1	유리왕 33(14)	2만	양맥/ 고구려현	양맥 공취, 고구려현 공격	高句麗本紀 第1
2	태조왕 69. 봄(121)	5천	현도 요동	유주자사 요광, 현도태수 요광 공격	高句麗本紀 第3
3	태조왕 6태조왕 69. 4(121)	선비 8천	요수현	요동태수 채풍 전사	『後漢書』東夷傳 高句麗本紀 第3
4	9. 12(121)	예맥 1만	현도성 포위	부여의 구원으로 대패	『後漢書』東夷傳 高句麗本紀 第3
5	신대왕 8. 11(172)	기병 수천	좌원	守城 후 한군을 추격하여 좌원에서 승리	『三國志』東夷傳 『後漢書』東夷傳 高句麗本紀 第4
6	동천왕 12(238)	1천		주부, 대가로 공손연 공격	『三國志』東夷傳 高句麗本紀 第5
7	동천왕 20(246)	2만/ 철기 5천		유주자사 관구검과 전투하여 환도성 함락	『三國志』關羽傳 高句麗本紀 第5
8	중왕천 12(259)	기병 5천	양맥	위나라 공격 격퇴 8천명 참수	高句麗本紀 第5
9	봉상왕 2. 8(293)	기병 5백	곡림	모용외의 침입을 신성재 고노자가 격퇴	高句麗本紀 第5
10	미천왕 3. 9(302)	3만	현도	현도군 공격, 8천명 공취	高句麗本紀 第5
11	고국원왕 12. 11(342)	5만+ 미상	남도/북도	북도의 전연군 격퇴 남도의 전연군에게 패배하여 환도성 함락	高句麗本紀 第6
12	고국원왕 39. 9(369)	2만	치양	백제 공격 패배	高句麗本紀 第6
13	고국양왕 2. 6(385)	4만	요동	요동성, 현도성 공취	高句麗本紀 第6
14	광개토왕 원년. 7(392)	4만	임진강 이북	석현성 등 10성 공취	百濟本紀 第3
15	광개토왕 3. 7(394)	기병 5천	수곡성	백제 침입 격퇴	高句麗本紀 第6 百濟本紀 第3
16	광개토왕 10(400)	步騎 5만	신라 일대	신라 구원, 왜군 격파	『廣開土王陵碑文』
17	광개토왕 17(407)	步騎 5만	사구성	백제 공격 승리	『廣開土王陵碑文』

이렇게 군대규모가 확장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를 왕권의 성장에서 찾은 견해가 있다. 3세기 이전 고구려의 군사동원체제는 무기의 자급으로 무장이 가능한 諸加와 豪民이 전사층을 형성하여 전투병력으로 동원되었고, 경제적으로 빈한하여 무장이 어려웠던 하위계층인 下戶는 보급을 담당했다고 한다. 3세기 중반 이후 왕권의 진전에 따라 지방통치체제의 개편으로 대민지배력이 강화되자,⁴⁸⁾ 하호가 公民으로 편제되었고 국가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인적자원이자 징집의 대상으로 전화되었다.⁴⁹⁾ 이렇듯 공민으로 변화된 하호를 인적기반으로 군대의 규모가 증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⁵⁰⁾

고구려의 군대규모 팽창을 가능하게 했던 또 하나의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⁵¹⁾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징집된 민을 무장시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고구려 초기의 군수체제는 자급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고대에서 철이 교역품이자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점을

48) 余昊奎, 『高句麗 初期의 兵力動員體系』, 『軍史』 36, 19쪽, 1998, 32~33쪽. 한편 3세기 중반 혹은 후반 이후의 고구려 지방통치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 존재 양태를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지방통치체제의 변화 결과 대민지배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琴京淑, 『4·5세기 고구려의 지방통치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사학보』 창간호, 1996; 金賢淑, 『高句麗의 領域支配方式 研究』, 모시는 사람들, 2005; 余昊奎,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남도과 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1, 1995; 林起煥,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박성봉 교수 회갑기념논총』, 1987).

49) 고구려 왕의 대민관 변화에 대해서는 金賢淑, 『고구려왕의 對民觀의 변화와 그 의미』, 『大丘史學』 58, 1999을 참고.

50) 余昊奎, 앞의 논문, 1998, 32~33쪽. 반면에 고구려가 건국 초기부터 일반민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해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鍾洙, 『고구려의 軍制와 그 承繼』, 『歷史教育』 96, 2005). 이것은 별개의 논의이기는 하나 군의 규모가 확장될 필요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강해진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M. Roberts, *The Military Revolution 1560~1660* Belfast, 1956).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를 통해 보다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51) 군대 규모 증가에 있어 대민지배력과 행정력의 강화에 기초하는 국가의 군역징발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군역징발 능력의 강화만을 군대규모 성장의 동인으로 파악하는 이해는 경제력을 비롯한 다른 동인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때문에 군사동원력 - 경제력, 군수지원 능력의 증대, 군사제도의 개편, 무기체계의 발달 - 을 증대시키는 여러 계기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Geoffrey Parker, *The Military Revolution, Military Innovation and the Rise of the West, 1500~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고려한다면, 빈한했던 하호⁵²⁾가 무구를 지급하지 못했던 이유는 철의 높은 가격으로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하호를 공민으로 편제하고 동원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이들의 경제력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무구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군대 규모의 팽창은 불가능했을 것 이다.

그런데 해당시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도 국가에서 징집된 민에게 무구를 비롯한 군수품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4세기 중반 이후 조성된 것으로 비정되는 안악 3호분이나 408년에 축조된 덕흥리 고분의 행렬도에서 당시 고구려군의 무구가 확인된다. 행렬도에서는 다양한 병종이 확인되며, 각 병종 별로 통일된 양식의 무구를 장비하고 있다. 이것은 병사들이 무구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제식장비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즉, 고구려는 군대규모의 확장과 함께 군수조달방식을 지급에서 국가지급형태로 바꾸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변화된 군수조달방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구를 제작하기 위한 鐵과 무구 제작능력의 확보가 필수였다. 물론 고구려가 두만강 일대에서 철을 생산했지만, 앞서 검토와 같이 철의 품귀는 생산량이 충분치 못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고구려가 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철광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에 주목되는 것이 광개토왕이 후연과의 전쟁 끝에 확보한 요동지역이다.

고구려의 요동확보는 늦어도 광개토왕 14년(405)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⁵³⁾ 보다 정확한 시기를 아래 사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보자.

C-1. 5월...고구려가 宿軍을 공격하니 燕의 平州刺史 慕容歸가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⁵⁴⁾

52) 하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상존한다. 그러나 하호는 신분구조와 수취체계 및 경제력에 있어 제가와 호민보다는 하위 계층을 형성했던 것으로 이해된다(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역사비평사, 1991, 59~63쪽).

53) 『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廣開土王 14年(405) 條.

54) 『資治通鑑』 卷112 晉紀34 安帝 元興 元年(402) 5月 條.

- C-2. ①永樂 5年 乙未에 穉麗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노략질을 그치지 않으므로)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富山, 負山을 지나 鹽水에 이르러 그 3개 부락 600~700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牛·馬·羊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②이에 왕이 행차를 돌려 襄平道를 지나 동으로 力城, 北豊, 五備로 오면서 土壤을 遊觀하고 田獵하며 돌아왔다.⁵⁵⁾
- C-3. 遼東國(秦이 세워 郡으로 삼았다. 漢 光武帝가 遼東 등을 靑州에 속하게 하였다가 뒤에 幽州에 속하게 하였다. 屬縣이 여덟 개이고, 戶는 5천 4백이다.) 襄平(東夷校尉의 居所이다.), 汶, 居就, 樂就, 西安平, 新昌, 力城이 있다.⁵⁶⁾
- C-4. ①垂가 죽고 그 아들 寶가 즉위하여 句麗王 安을 平州牧으로 삼고 遼東·帶方 2국왕에 봉하였다. … ②뒤에 요동군을 略有했다.⁵⁷⁾

C-1은 402년에 광개토왕이 군사를 보내 후연의 숙군성을 공격한 기사이다. 숙군성은 지금의 서요하 인근의 요령성 北鎮市근처로 비정된다.⁵⁸⁾ 고구려가 서요하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요동지역 확보가 선행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고구려는 402년 5월 이전에는 요동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료 C-2를 살펴보면 고구려가 이미 395년에 숙군성보다 이서에 위치한 시라무렌河 유역에 진출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C-2-①은 능비문의 내용으로 고구려가 영락 5년(395)에 거란의 전신인 穉麗를 정벌하였으므로, 고구려가 395년경 시라무렌河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⁵⁹⁾ 또

55) 『廣開土王陵碑文』 ‘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穉麗不~~人~~射率往討過富山負山至鹽水上破其三部洛六七百營牛馬群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襄平道東來~~城~~力城北豊五備~~遊~~觀土壤田獵而還’

56) 『晉書』 卷14 志4 地理 上. ‘遼東國秦立爲郡 漢光武以遼東等屬靑州,後還幽州 統縣八 戶五千四百 襄平東夷校尉所居 汶居就樂就安市西安平新昌力城’

57) 『梁書』 卷54 列傳 第48 諸夷 高句麗. ‘垂死 子寶立 以句麗王 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중략〉…後略有遼東郡’

58) 孫進己, 王錦厚, 『東北歷史地理』, 第2卷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126쪽.

59) 千寬宇, 『伽倻史研究』, 일조각, 1991, 136~170쪽. 한편 『三國史記』 광개토왕 즉위년 조 기사를 보면 9월에 거란을 정벌하고 잡혀갔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보인다(『三國史記』 卷 第18 高句麗本紀 第6 廣開土王 元年(391) 條). 이 기사는 C-2-①과

한 C-2-②를 살펴보면 고구려가 395년경 요동을 점유했음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된다. 광개토왕은 稗麗 정벌 후 襄平道를 따라 遊觀土境을 실시하며 돌아왔다.

양평도의 경로와 설치지역은 C-3에서 추정 가능하다. 양평도는 그 이름처럼 양평을 경유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양평은 西晉 遼東國의 8현 가운데 하나로 지금의 요양 서북방면에 위치했다. 양평도의 경로 도시였던 力城 역시 8현 중 하나였다. 북풍은 요동국 8현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그 인근인 심양의 서북쪽에 위치했다.⁶⁰⁾ 즉, 광개토왕의 유관토경 경로인 양평도는 요동지방의 교통로였다.

유관토경은 왕권이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요동지역의 양평도와 그 경로상 위치했던 성들은 당시 고구려의 영역으로 파악된다.⁶¹⁾ 광개토왕은 새롭게 확보하여 경계가 유동적인 요동지역에 대한 유관토경을 통해 후연과의 접경을 명확히 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C-4-①에 보이는 후연의 광개토왕 책봉기사는 이러한 실상이 반영되었던 결과로 이해된다. 後燕의 慕容寶는 아버지 모용수가 396년 4월 陣中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기년에 차이가 있다. 기년 차이는 능비문의 백제 방면 기사가 여러 해의 일을 통합하여 기술된 것처럼, 다른 방면의 훈적 기사도 실제 기년에 관계없이 각 방면별로 통합된 서술체계를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余昊奎, 『廣開土王陵碑』에 보이는 高句麗 天下의 공간적 범위와 주변 族屬에 대한 인식, 『역사문화연구』 32, 2009, 7쪽).

60) 李亨求, 朴魯熙, 『廣開土大王陵碑新研究』, 同和出版公社, 1985, 71쪽.

61) 김영하·손영중·서영수, 武田幸男도 위와 유사한 논리에 의해 해당시기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손영중, 『광개토왕릉비를 통하여 본 고구려의 령역』, 『력사과학』 1986-2, 1986, 23쪽; 徐榮洙, 앞의 논문, 1988, 101~104쪽; 武田幸男, 앞의 책, 1989, 213쪽; 金瑛河, 앞의 책, 2002, 153쪽). 그러나 고구려의 요동확보시기를 상이하게 보는 견해도 상존한다. 여호규는 400년 3월 이후 광개토왕이 요동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았다(余昊奎,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과 대외 정책』, 『역사와 현실』 55, 2005, 36쪽). 한편 강재광은 401년에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姜在光, 『高句麗 廣開土王의 遼東確保에 관한 新考察-廣開土王碑 '丁未年條'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2, 2009, 19~20쪽). 한편 고구려가 양평 북풍, 역성 등을 확보했으므로, C-3에 보이는 나머지 汶, 居就, 樂就, 西安平, 新昌의 지역들도 고구려의 영역으로 추정된다.

사망하자 즉위하였다. 즉위 직후 그는 고구려에 대한 책봉을 실시했다. 책봉의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⁶²⁾가 있으나, 본 기사의 정확한 성격은 책봉 주체국이었던 후연이 처했던 상황과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연은 모용수의 치세 말년인 395~396년간에 拓跋氏의 北魏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395년 參合陂에서 후연군이 북위에게 대패했고 그 충격으로 모용수가 사망했다. 또한 396년 9월에는 수도인 중산이 북위의 포위공격을 받게 되었다. 397년 3월에 결국 중산이 함락당해 모용보는 수도를 지금의 朝陽 부근인 龍城으로 옮겨야만 했다. 이와 같이 후연은 북위의 침공이라는 계속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북위 및 고구려와 양면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4세기 중반 이래 요동지역을 놓고 대립해왔던 고구려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모용보는 즉위 직후인 6월에 북위와의 전쟁을 위해 대대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을 정리했다.⁶³⁾ 호적을 정리하며 전쟁을 준비⁶⁴⁾하는 와중에 북위를 상대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대외정책도 동시에 수립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기 이루어졌던 광개토왕에 대한 책봉은 대 북위 전쟁을 위한 전략과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모용보는 대 북위 전쟁의 패배와 계속된 북위의 공격으로 고구려와 대적할 여력이 없었다. 때문에 395년에 빼앗긴 요동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권을 책봉이라는 형태로 마치못해 인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에 대한 후연의 책봉은 실질적인 실효성보다는 양국이 서로의 영역을 확인하고 인정했던 상징적 외교형태로 이해됨이 옳다고 본다.

다만 C-4-②에 보이는 ‘후에 요동을 略有했다’라는 기록이 고구려의 요동 영유 사실을 의심케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고구려가 396년

62) 임기환은 모용보의 책봉이 후연의 일방적인 선언이라고 파악하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林起煥, 『南北朝期 韓中 冊封朝貢관계의 성격-고구려·백제의 冊封·朝貢에 대한 인식의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32, 2003, 16쪽). 그러나 여호규는 실질적인 조공책봉관계가 수립된 것으로 파악했다(余昊奎, 앞의 논문, 2005, 39~41쪽).

63) 『資治通鑑』 卷108 晉紀30 烈宗 太元 21年(396) 6月 丁亥 條. ‘燕主寶定士族舊籍 分辨清濁 校閱戶口 罷軍營封廕之戶 悉屬郡縣 由是士民嗟怨 始有離心’

64) 호적 정리의 목적은 제정의 확보 및 군 징집을 위한 호구의 파악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후에 요동을 확보했다는 의미보다는 400년경에 일시적으로 신성과 남소성 및 인근의 700여 리를 일시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⁶⁵⁾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서술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요동지역 확보는 고구려에게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현재 요동평원과 요양 일대에는 철광이 산재해 있으며 매장량 또한 풍부하다. 고대에도 요동성과 안시성 일대는 철의 생산지였다.⁶⁶⁾ 따라서 고구려는 요동평원을 확보함으로써 4세기 말 추가적인 철광을 얻게 되었다. 이는 철 생산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당시 요동의 철광과 낙랑 및 대방지역의 제철기술자들을 확보하여 철제 무구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구려는 공민들 중 경제력이 빈약했던 계층까지도 징집, 무구를 지급함으로써 3세기부터 점차로 성장되었던 군대의 규모를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시기에 보다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확보한 이후가 되면 외정에 동원 가능했던 병력이 5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광개토왕은 재위 10년(400)에 신라를 구원하여 왜군을 격파했을 때 步騎 5만을 투입했다. 同王 17년(407)에는 步騎 5만 명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沙溝城 등을 함락시키는 등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⁶⁷⁾ 이처럼 고구려는 전장에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후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본국의 수비 병력을 고려한다면 5세기 초 고구려의 동원가능 병력은 5만 명을 훨씬 상회했으리라 여겨진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고구려는 395년 이전에 요동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철이라는 전략자원을 확보하였다. 추가적인 철광은 고구려군이 고국원왕대 저하되었던 전투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군대 규모 증대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광개토왕은 증가된 고구려군을 바탕으로 396년 이후 대외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65) 『三國史記』卷第18 高句麗本紀 第6 廣開土王 9年(399) 條.

66) 李龍範,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1, 1966, 80~86쪽.

67) 『廣開土王陵碑文』永樂 10年(400), 17年(407) 條.

(2) 등자사용과 전투기술 및 전술의 진보

4~5세기 축조된 고구려의 고분의 벽화에는 다양한 병종의 고구려군이 등장한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騎兵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4~5세기 고구려의 기병 전력이 증가했고 군에서 그 역할이 상당했다고 한다.⁶⁸⁾

고구려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먼저 고구려가 다량의 전투마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광개토왕은 395년에 요동을 확보했고 동몽고 지역으로 일시 진출한 바 있었다. 그 과정에서 稗麗의 3개 부락 600~700營을 격파하여 노획한 牛·馬·羊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한다(C-2). 이때 노획된 말은 유목민들의 말이던 만큼 대부분 바로 전마로 사용 가능했을 것이고, 이것들은 상당수가 고구려의 기병 전력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는 요동일대의 평원을 확보하여 동몽고나 북만주일대의 초원세력-契丹, 奚, 室韋, 南室韋-들과의 연결통로를 확보하였다. 아마도 고구려는 이들과 말을 교역하면서⁶⁹⁾ 전마를 이전보다 용이하게 조달했으리라 추측된다.⁷⁰⁾ 또한 요동 평원지역에서 자체적인 전마의 수급도 이루어졌으리라 쉽게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전투마의 증가가 곧 기병의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상전투 수행을 위해서는 숙련된 기마병이 필요했으나, 기마병 확보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⁷¹⁾ 이에 주목되는 것이 비슷한 시기 고구려

68) 각주 10 참조.

69) 『北史』에 따르면 契丹은 중국세력에 명마를 헌상했다고 한다(『北史』 卷94 列傳 第82 契丹傳). 이는 契丹의 주요 생산품이 말이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실위의 경우 살인한 자는 말 300마리로 責한다는 내용(『北史』 卷94 列傳 第82 室韋傳 “殺人者責馬三百匹”)을 볼 때 실위 역시 말이 주요 재산이자 교역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70) 이때 고구려가 교환했던 재화는 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초원은 철광이 있다 하여도 이를 제련하기 위한 연료인 수목이 부족한 지역이었다. 때문에 철의 가치가 말보다는 높았을 것이고 이는 양자의 욕구가 충족되는 거래로 이어졌으리라 추정된다. 실제로도 南室韋의 경우 철이 없어 고구려에서 철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다(『北史』 卷94 列傳 第82 南室韋傳 “南室韋在契丹北三千里…(중략)…其國無鐵, 取給於高麗”).

71) 한편 고구려의 기병에는 고구려인이 아닌 종족의 부용세력도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가

에 도입되었던 새로운 馬具인 鏡子였다.

등자는 말의 안장에 연결하는 발판으로 고삐, 안장과 함께 인간의 기승을 용이하게 만든 마구였다. 등자의 발명과 사용은 군사측면과 사회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⁷²⁾ 4세기경 모용선비와 접촉함으로써 고구려에도 등자가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에 등자가 전파된 시기는 연구자마다 파악하는 바가 다양하나,⁷³⁾ 태왕릉과 오녀산성 출토 등자에서 고구려의 등자 도입시기와 확산, 사용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와 集安市博物館은 2004년에 집안지역 초대형 적석총 13기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를 출간하였다.⁷⁴⁾ 보고서 발간에 따라 연구자들이 장지명이나 태왕릉 출토 등자, 천추총·태왕릉·장군총에서 발굴된 권운문·연화문 와당을 분석하여 왕릉의 조영시기와 피장자를 비정하였다.⁷⁵⁾ 본고에서는 태왕릉의 등자가 경주 황남대총 마구에 선행하고, 전연

말갈과 契丹의 기병을 군사적으로 수탈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朴京哲, 『高句麗異種族支配의 實相』, 『韓國史學報』 15, 2003; 李康來,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 『嶺土問題研究』 2, 1985).

72) 등자 보급이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시키고 중세사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는 등자 사용의 사회적 여파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Lynn White Jr., *Medieval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73) 신경철은 남부지방 最古 등자가 출토된 복천동 35·36호분과 고구려 덕흥리고분 벽화(408년 조성), 복연 馮素弗 묘(415년 조성)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는 415년을 전후한 시기 등자의 한반도 전래 가능성을 제기했다(申敬澈, 『古式鏡子考』, 『釜大史學』 9, 1985, 94~95쪽). 서영교는 고분벽화자료를 분석하여 고구려의 등자 사용 일반화 시기를 5세기 중후반으로 파악했다(徐榮教, 앞의 논문, 44쪽, 2004a, 51~55쪽). 한편 강인욱은 등자의 기원은 흉노였으나, 본격 사용의 시초는 모용선비의 삼연문화로 보았다. 그는 3세기 말~4세기 모용선비와 고구려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등자와 중장기병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이해했다(강인욱, 『고구려 鏡子の 發生과 유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북방사논총』 12, 2006).

7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集安高句麗王陵 : 1990~2003年 集安高句麗王陵 調查報告』, 文物出版社, 2004.

75) 다수의 중국학자들은 태왕릉을 광개토왕릉으로 파악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通溝古墳群1997年測繪報告』, 科學出版社, 200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앞의 책, 2004; 張福有·孫仁杰·遲勇, 『高句麗王陵通考要報』, 『東北史地』 2007-4, 2007; 魏存成, 『集安高句麗大形積石墓王陵研究』, 『社會科學戰線』 2007-4, 2007).

의 마구에 후속한다는 연구결과⁷⁶⁾와 권운문와당과 연화문와당의 교체 및 그 시기를 분석하여 태왕릉을 고국양왕의 능으로 결론지은 선행 연구결과를 따르고자 한다.⁷⁷⁾

태왕릉이 고국양왕릉이라면 고구려에는 4세기 말 이전에 이미 등자가 전래되었고 사회 상층부까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칠성산 96호분 출토 등자가 태왕릉 출토 등자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시기적으로 선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고려하면, 등자가 고구려 사회에서 4세기 중반경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⁷⁸⁾ 다만 태왕릉의 등자는 철제 단조등자가 아닌 목심등자로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의장용이라 생각된다.

왕릉이나 유력 세력가의 무덤으로 볼 수 있는 적석총에 등자가 부장품으로 사용될 정도라면 4세기 중후반경 馬具에 있어 등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고구려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이해된다.

반면 일부의 외국인연구자와 다수의 국내연구자들은 태왕릉을 고국양왕의 무덤으로 파악하고 있다(桃崎祐輔, 『高句麗王陵出土瓦・馬具からみた廣開土王陵説の評價』, 『海と考古學』, 海交史研究會考古學論集刊行會 編, 六一書房, 2005; 『高句麗王陵出土瓦・副葬品からみた編年と年代』, 『고구려왕릉연구』, 2009; 여호규, 『集安地域 고구려 超大型積石墓의 전개 과정과 被葬者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2008; 정호섭, 『고구려 적석총의 피장자에 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43, 2008; 임기환, 『고구려의 장지명 왕호와 왕릉 비정』, 『고구려 왕릉 연구』, 2009). 한편 태왕릉을 소수림왕릉으로 본 東湖의 연구도 있다(東湖, 『高句麗王陵と 巨大赤石冢』, 『朝鮮學報』 199・200, 2006; 『高句麗王陵と 陵園制-國內城平壤城時代』, 『고구려 왕릉 연구』, 2009).

76) 桃崎祐輔은 등자 형태를 통해 태왕릉의 등자가 전연의 마구에 후속하고 황남대총보다는 빠르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桃崎祐輔, 2005, 앞의 논문, 103쪽 : 앞의 논문, 2009, 279쪽). 최종택은 칠성산 96호분 등자가 형태적으로 전연의 孝民屯 154號墳(4세기 352~370년)·袁台子壁畫墓(354년 또는 366년)에서 출토된 등자와 유사하므로 이를 4세기 후엽으로 편년하였다. 또한 태왕릉 출토 등자는 칠성산 96호분 등자와 형태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로 파악할 수 있으며, 늦어도 5세기 초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최종택, 『集安 '高句麗 王陵' 出土遺物の 諸 問題』, 『한국고대사연구』 41, 2008, 160~163쪽).

77) 余昊奎, 앞의 논문, 2008, 115~120쪽.

78) 최종택은 칠성산 96호분의 등자를 4세기 후엽, 태왕릉의 등자를 늦어도 5세기 초반으로 이해했다(최종택, 앞의 논문, 2008, 160~163쪽). 그런데 태왕릉이 고국양왕의 무덤이라면 능의 조성시기는 390년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칠성산 96호분 출토 등자의 편년은 이보다 상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현숙 역시 칠성산 96호분의 조성 시기를 4세기 중반으로 파악하고 있다(姜賢淑, 『古墳 出土 甲冑와 馬具로 본 4・5세기의 新羅, 伽倻와 高句麗』, 『신라문화』 32, 2008, 148~149쪽).

등자의 보급정도는 오녀산성에서 출토된 등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에서 2004년 발간한 『五女山城-1996~1999, 2003年 桓仁五女山城照査發掘報告』에 따르면 오녀산성의 문화층을 5기로 세분하였다. 그 중 4기 문화층은 4세기 말~5세기 초이며, 해당 문화층에서 4건의 등자가 출토되었다.⁷⁹⁾ 오녀산성의 발굴지는 매장유적이 아닌 생활유적이다. 즉, 오녀산성 등자는 부장품이 아닌 생활용품으로 파악되며, 해당시기 고구려가 등자를 널리 사용하고 있었음을 적시하는 직접적 증거이다.

등자가 군사발전에 미친 영향은 전투기술⁸⁰⁾ 및 전술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등자가 발명되기 이전 기마술은 기승자의 下肢 근력으로 말의 배를 조여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때문에 기수가 마상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상에서 과격한 움직임은 기승자의 낙마를 초래하기도 했다. 마상전투의 어려움 때문에 기마보병⁸¹⁾이나 투사무기 - 투창, 활 - 를 사용하는 기병이 운영되기도 했다. 그런데 등자가 발명되면서 기승자가 마상에서 보다 용이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기 사용을 위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등자로 인해 기승자의 부담가능중량이 증가한 것에 주목하여 등자 사용과 중장기병의 출현을 연결시킨 연구도 있다. 중갑을 착용하고 마상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자가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⁸²⁾ 또한 등자의 사용으로 출현한 중장기병의 강력한 전투력이 고구려의 영역확장에 기여했다는 견해가 있다.⁸³⁾ 등자 사용이 중장 기병이라는 새로운 병종 등장을 촉발했고, 그 강력한 전투력이 고구려의 영역확장에 기여했다는 이해이다.

필자도 중갑 착용하 전투에 있어 등자가 유용한 마구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등자 사용의 의미를 중장기병과 직결시키기보다는, 등자로 인한 전

7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五女山城-1996~1999, 2003年 桓仁五女山城照査發掘報告』, 文物出版社, 2004, 157·173쪽.

80) 전투기술은 전투요원 개인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요령과 방법을 의미한다.

81) 騎馬步兵은 빠른 속도를 위해 기승하여 기동하고, 전투 시에는 하마하여 보병처럼 전투를 수행하는 병종을 말한다.

82) 강인욱, 앞의 논문, 2006.

83) 李仁哲, 앞의 논문, 1996 : 앞의 책, 2000.

투기술과 전술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⁴⁾

등자 사용 이전의 기병은 제한적인 마상전투를 수행했다. 간혹 마상전투를 수행하더라도 기승자는 상완의 힘으로만 충격력을 가해야 했다.⁸⁵⁾ 말의 운동에너지를 충격력으로 전환하여 적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반발력으로 인해 기승자의 낙마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물리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등자가 없을 경우 수평으로 가해지는 힘을 안장만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분산 및 지탱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적을 충격하여 발생하는 반발력과 반발력이 전환되어 생성되는 회전력은 기수가 안장과 하지의 근력만으로 균형을 잡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때문에 기병의 전투기술이 投槍과 弓矢로 제한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기마보병이라는 병종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등자를 사용함으로써 기승자는 말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적을 타격하여도 그 반발력을 상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전력에 의한 균형 상실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즉, 등자는 기병의 충격력과 잠재에너지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던 것이다.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기 힘들었던 기병돌격(mounted charge)이 가능해졌다.⁸⁶⁾ 기병돌격은 기승자가 말의 빠른 속도와 중량으로 발생하는 충격력을 무기를 통해서 목표물에 전달, 목표물을 살상 및 파괴하는 전투기술을 말한다.

무기체계의 변화에서도 기병돌격의 단초가 찾아진다.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3세기 말까지는 도검 중심의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었다.⁸⁷⁾ 그런데 4세기를 기하여 고구려의 무기체계는 창을 중심으로 변화했고, 기병의 경우 기병용 장창인 稍을 중요 병기로 사용하게 되었다.⁸⁸⁾ 이러한 변화는 등자의 보급과 병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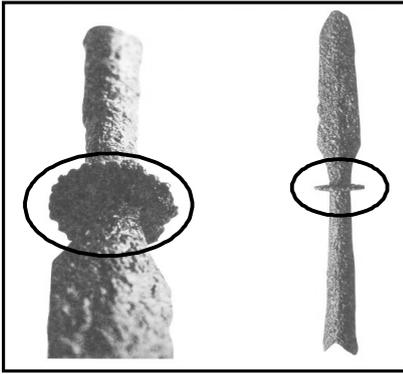
84) 부차적인 논의이기는 하나 필자는 중장기병은 아래에서 논의될 기병돌격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85) H. Delbrück, *Geschichte der kriegskunst*, Berlin, I. 1900, p. 141.

86) Lynn White Jr., *ibid.*, 1962, p. 2.

87) 金性泰, 『高句麗 兵器에 대한 研究』, 『高句麗研究』 12, 2001, 802~807쪽, 831쪽.

88) 余昊奎, 위의 논문, 1999, 56쪽. 한편 余昊奎는 稍이 중장기병의 전래로 사용되었다고 보았(余昊奎, 위의 논문, 1999, 57~58쪽)다. 그러나 작은 기병 돌격창으로, 기병이 충돌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마구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기능이 발휘가 되는 무기이다. 따라서 稍의 사용은 등자의 사용에 따른 전투기술의 변화와 연관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1〉 용원리9호 석실분 출토 고구려계 석반부 철모(『고구려의 무기, 무장, 마구』, 김성태, 2007,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403쪽에서 전재)



〈그림 2〉 서양 중세 기사들의 마상전투 모습 (Perter Yong, 1981, *The Fighting Man, from the Alexander the Great's Army to the Present Day*, Rutledge Press, New York, p. 62에서 전재)

4~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 중 연대파악이 가능한 것은 4세기 중반 축조되었던 안악 3호분⁸⁹⁾과, 408년에 축조되었던 덕흥리 고분이다. 두 무덤에는 모두 행렬도가 그려져 있다. 안악 3호분의 경우 40명의 무사 가운데 삭을 소지한 기병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다. 후대에 조성된 덕흥리 고분은 22명의 무사가 등장하며, 삭을 소지한 기병은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약수리 고분 벽화의 경우에는 삭을 소지한 기병이 약 5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⁹⁰⁾ 이러한 변화는

89) 안악 3호분의 조성 연대는 피장자 논쟁과 맞물려 있다(金貞培, 『安岳 3號墳 彼葬者 論爭에 대하여』, 『古文化』 16, 1978 참조). 徐永大는 묘주를 동수로 파악하였다(徐永大, 『安岳 3號墳 墨書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1992). 북한학계는 이를 미천왕릉으로 보았으며(전주농, 『안악 하무덤에 대하여-그 발견 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유산』, 1959), 고국원왕릉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仁哲, 『安岳 3號墳의 연꽃무늬와 墨書銘』, 『韓國 古代의 考古와 歷史』, 學研文化社, 1997).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지만 고분의 조성 연대는 어떠한 견해를 따르더라도 4세기 중반 이후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피장자 논쟁과 그에 따른 조성 연대에 천착하기보다, 고분의 행렬도 벽화가 4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군의 무장 상황을 반영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90) 본 비율은 余昊奎, 앞의 논문, 1999과 이태호·유홍준, 『高句麗古墳壁畫』, 풀빛, 1995을 참고로 산출하였다.

고구려군에 있어 장창 기병의 유용성이 증명되면서 군대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점차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작은 찌르는 무기로 기병 돌격에 사용되었다. 즉, 장창 기병의 증가는 고구려군이 기병돌격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창의 형태도 기병돌격이 새로운 전술로 사용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4세기로 편년되는 고구려 창 특징 중 하나는 燕尾有關形이었다. 연미유관형 철모들 가운데 鍔部에 錫盤이 달린 錫盤附鐵銚(〈그림 1〉)가 고구려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⁹¹⁾ 석반의 기능을 旗를 매달기 위한 것으로 보아 錫盤附鐵銚를 旗槍의 銚로 본 견해도 있다.⁹²⁾ 그런데 중국과 서양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창이 있어 주목된다.

유럽의 경우 7~8세기 들어 등자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고, 등자 사용과 맞물려 창날 밑 부분에 석반과 같은 받침대와 돌기가 있는 창이 널리 이용되었다. 〈그림 2〉를 보면 창모의 하단부에 석반과 동일한 형태의 구조물을 볼 수 있다. 등자를 사용하는 기병은 창에 자신과 말의 체중을 전부 실어 찌르기 때문에 창이 회수가 어려울 정도로 深刺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때문에 〈그림 2〉에서 보이는 구조물이나 받침, 돌기가 창을 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카롤링거 시대에는 받침과 돌기가 십자창 형태로 발전하였으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다. 서구 학계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가진 창을 등자와 함께 기병돌격의 증거로 파악하고 있다.⁹³⁾ 한편 중국에서도 삭에 鉤를 달아 지나친 관통을 방지하고자 했다.⁹⁴⁾ 즉, 창을 병부에 돌출된 구조물은 기병창의 보편적인 요소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고구려의 석반부철모와 서양의 기병창(〈그림 2〉)을 비교해보면 양자의 구조적 기능과 형태가 합치함을 알 수 있다. 석반은 거의 부착을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기병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로 파악된다.

91) 金性泰, 앞의 논문, 2001, 808·812쪽.

92) 金性泰, 「최근 보고된 고구려무기의 검토」, 『高句麗研究』 20, 2005, 123쪽.

93) Lynn White Jr., *ibid.*, 1962, pp. 27~28.

94) 시노다 고이치 저, 신동기 역, 『무기와 방어구 : 중국편』, 들녘, 2001, 115쪽.

무기체계의 우위와 전투기술 및 전술상의 선진화는 전장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때문에 전투기술과 전술 측면에 있어, 등자 사용의 의의 중 하나는 전투기술 발전에 따라 수반된 전술상의 진전인 기병돌격으로 생각된다.⁹⁵⁾ 그런데 고구려의 군사발전이 대외전쟁에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백제와 후연의 군사발전 수준과 비교하여 우월하거나 대등한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백제의 경우를 검토해 보자. 백제에 있어 기병돌격에 필수 요소인 등자의 전래는 그 경로에 대한 이견⁹⁶⁾이 있으나 천안 두정동·청주 봉명동 출토 등차를 볼 때 대략 4세기 후반으로 파악된다.⁹⁷⁾ 이는 고구려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이다. 또한 그 확산은 지역 집단들에 의한 내부적 지배력 강화 욕구와 백제 지배층의 지역 통합 욕구가 상호 부합하여 전래 초기에는 일부의 재지 수장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확산형태를 띠었던 것으로 이해된다.⁹⁸⁾ 즉, 도입 초기 백제의 등자는 확산과정이 느렸고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위신재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백제의 마구가 5세기에 이르러 재지화가 이루어졌고, 5세기 중반 이후

95) 우리 학계에서는 등자의 사용 의의를 주로 중장기병의 출현과 연관지어 왔다. 즉, 중장기병의 출현이 등자 사용을 담보로 한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徐榮教, 앞의 논문, 2004a)로 양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등자 사용의 의미가 중장기병보다는 기병장을 사용한 충격행동에 있다고 본다. 기병돌격(mounted charge)은 등자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동이지만, 등자의 사용이 중장기병의 필연적 등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중장의 목적은 방어력의 향상에 있었다. 중장은 기병돌격 간 기병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기병돌격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었다.

96) 백제 마구의 전래가 4세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선비계 마구로 보는 이해와(朴淳發, 『漢城百濟의 對外關係』, 『百濟研究』 30, 1999; 成正鏞, 『漢城期 百濟馬具의 編年과 그 起源』, 『國史館論叢』 101, 2003; 柳昌煥, 『百濟馬具에 대한 基礎的 研究』, 『百濟研究』 40, 2004) 백제 마구 전체가 동북지역에서 이입되었거나 이를 기반으로 재지화된 것이 아니라 남부지역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았다는 견해가 있다(李尙律, 『新羅, 伽倻文化圈에서 본 百濟의 馬具』, 『百濟文化』 27, 1998; 『天安 斗正洞, 龍院里古墳群의 馬具』, 『韓國考古學報』 45, 2001). 만약 이상률의 견해를 따른다면 백제의 등자수용의 시기는 더욱 늦어진다고 할 수 있다.

97) 성정용과 유창환의 경우 백제의 등자수용을 4세기 중후반경으로 보고 있으며(成正鏞, 앞의 논문, 2003, 37쪽; 柳昌煥, 앞의 논문, 2004, 179쪽), 이상률은 보다 조금 늦은 시기인 4세기 후반으로 파악하고 있다(李尙律, 앞의 논문, 2001, 139~146쪽).

98) 成正鏞, 앞의 논문, 2003, 46쪽.

에야 遊環付鑣轡, 등자, 環形雲珠로 구성된 전형이 출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⁹⁹⁾ 백제의 본격적인 등자 사용은 고구려보다 늦은 시기인 5세기 이후로 판단된다.

기병돌격의 존재를 보여주는 다른 증거인 창 의 형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기병돌격을 위한 기병창(稍)의 경우 석반과 같은 구조물이 필요하였다. 백제의 철모는 상당수 출토되고 있으나 석반부 철모의 경우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천안 용원리 고분군¹⁰⁰⁾에서 1점만이 출토되었을 뿐이다.¹⁰¹⁾ 그러나 용원리 고분군의 석반부철모는 5세기 후반 천안지역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반독립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백제의 창이라고 보기 어렵다.¹⁰²⁾ 또한 해당 시기 기병창의 하부구조인 고달이 거의 출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백제에서 기병돌격이 주요한 전투기술 및 전술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헌사료를 검토해 보아도 『晉書』馬韓傳에는 “善用弓楯矛櫓”라 하여 3세기 중반~5세기 초반 백제에서는 보병용 단창(矛)이 창 의 주종을 이루었다. 기병창의 사용은 『周書』百濟傳에는 “兵器有弓箭刀稍”라 하여 6세기경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¹⁰³⁾ 즉 창 의 형태로 보아 4세기 말 5세기 초 백제는 기병돌격의 전투기술과 전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모용선비의 경우 전연 때부터 등자를 사용하여 고구려보다 이른 시점에 등자를 군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이해되고 있다.¹⁰⁴⁾ 즉, 모용선비는 고구려보다 선행하여 기병돌격의 전투기술을 구사했을 것이다. 전투에서 기병돌격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를 고구려가 모용선비를 쉽사리 극복하지 못한 하

99) 柳昌煥, 앞의 논문, 2004.

100) 이상률은 마구의 양식을 볼 때 해당 고분군이 5세기 후반~6세기 대에 조성되었다고 보았다(이상률, 앞의 논문, 2001).

101) 李南奭, 『龍院里古墳群』,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102) 김성태, 「三國時代 鐵鎗의 연구」, 『士林』 16, 2001, 236~237쪽.

103) 6세기에 이르러 창 의 구성에 있어 稍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김성태, 「百濟의 兵器-칼, 창, 축의 기초적 분석」, 『백제연구』 26, 1996, 297쪽).

104) 각주 73, 76 참조.

나의 요인으로 이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고구려도 고국원왕대 전연과의 접촉을 통해 등자를 인지하고 4세기 중반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광개토왕대에는 모용선비의 후연과 동등한 기병돌격의 전투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광개토왕은 이를 기반으로 북위와의 전쟁으로 쇠잔해진 후연을 요동에서 축출하고 영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해 보면 4세기 말~5세기 초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이 격화되었던 시기 백제는 고구려보다 군사적 진보가 늦었음이 확인된다. 같은 시기의 후연과 고구려를 비교했을 경우 뒤처져 있던 고구려의 군사발전의 수준이 후연과 거의 동등해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군사발전의 결과 새롭게 체득된 고구려의 전투기술과 전술은 전장에서 커다란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고, 이는 전쟁의 향배를 바꾸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4. 맺 음 말

본고는 4세기 중반, 5세기 초에 고구려가 열세였던 대 백제 관계를 극복하고 급속한 국력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일 요인이 군사발전에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맺음말에서는 논지를 요약하여 글을 마무리 짓겠다.

첫 번째 군사발전의 계기적 요인의 하나로 군대규모의 증가를 검토했다. 4세기 이전, 고구려는 제가와 호민이 무구를 자급하면서 전사층을 형성했고, 빈한한 하호는 무구를 갖추지 못하여 보급을 담당했다. 4세기 들어 고구려는 하호를 공민으로 편성하여 군대의 인적구성원으로 편제했다. 또한 고구려는 395년경 후연과의 각축 끝에 요동지역을 확보하여 징집된 병력을 무장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군대 규모의 증가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등자의 보급으로 촉발된 군사적 발전을 확인했다. 등자가 4세

기 중후반경 고구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전투기술 및 전술상에 변화가 나타났다. 등자의 기능적 유용성으로 기병의 충격력이 강화되어 기병 돌격(mounted charge)이 가능해졌다. 선진화된 전술은 대외전쟁에서 고구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광개토왕은 이러한 계기적 요인을 통해 강화된 고구려군을 동원하여 대외전쟁에서 백제를 압도하고 후연을 요동에서 축출하였다. 즉, 고구려의 국세성장과 영역확장은 율령 반포 등의 정치적인 안정과 발전, 유리한 국제정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여러 발전 요소가 서로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기능하여 총체적 군사역량이 증대되었던 점도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0. 9. 30, 심사수정일 : 2010. 10. 16, 게재확정일 : 2010. 10. 29.)

주제어 : 광개토왕, 군사발전, 군사, 호민, 하호, 공민, 등자, 기병돌격, 고구려, 군사력

<ABSTRACT>

Military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Goguryeo*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ato*

Na, Dong-wook

After King *Gwangato*'s enthronement, *Goguryeo* had taken initiative in bilateral relationship to *Baekje* till the end of 5th century reversing the balance that has lasted since 4th century. The main supporting reasons for such a rapid growth of national power are not only the political maturity and stability and the profitable international conditions, but the development of military power.

Goguryeo could organize the massive military providing necessary weapons to enlisted citizens from *Haho*(下戸) by intensified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power of authority toward public, and the abundant iron from *Laodong* Area. Furthermore, the advent of stirrups in mid 4th century made *Goguryeo* commence new arts of combat and strategies in the battlefields.

Through these opportune elements King *Gwangato* could hold a dominant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s to *Baekje* by employing its strengthen military.

That is to say, *Goguryeo*'s national growth and extension its territory was possible not only because of *Goguryeo*'s political stability and development by enforcing the law, of the advantageous diplomatic conditions, but of the improvement of military elements through compounding and comprehensive enlargement on armed forces capabilities.

Key Words : King *Gwangato*, Military Development, Military Affairs, *Homin*, *Haho*, *Gongmin*, Stirrups, Mounted Charge, *Goguryeo*, Military Power

